

“서울리전 통해 ‘소버린 클라우드’ 포괄적 선택권 제공”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 2025

AI 연산작업 수행 지원 옵션 발표
7세대 텐서 처리장치 ‘아이언우드’
높은 에너지 효율·연산 성능 갖춰
“AI, 스스로 해석·인사이트 제공”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데이터 저장장은 물론 머신러닝(ML)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레지던시 옵션을 공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로서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선 것이라 분석이다.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 2025’에서 구글은 서울 리전을 기반으로 AI 연산 작업까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옵션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위치 제어를 넘어, 머신러닝 처리 작업의 물리적 수행 위치까지 국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기성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은 “구글클라우드에는 모델, 하드웨어, 그리



지기성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데이 서울’에서 발표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고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플랫폼 도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리전은 2020년 개설된 이후 고 대역폭과 낮은 레이턴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품질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구글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

며, 지상 및 해저에 걸쳐 구축된 200만 마일 규모의 광케이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옵션은 특히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인 ‘제미니 2.5 플래시’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능을 국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구글 측은 “속도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서울 리전을 통해 고객에게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포괄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연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구글은 자체 개발한 7세대 텐서 처리 장치(TPU) ‘아이언우드’를 소개했다. 아이언우드는 대규모 AI 추론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TPU 가속기로, 높은 에너지 효율과 연산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기성 사장은 “아이언우드의 등장은 추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이제 AI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해석하고 선제적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통합 AI 개발 플랫폼 ‘버텍스(Vertex) AI’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등 다양한 형식의 입력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구글 답마인드의 AI 연구 성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는 구글클라우드와 협업 중인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함께 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AI 검색, 생산성 도구,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 ‘뤼튼 3.0’을 출시하며 제미니 2.5 모델군을 주요 기반으로 도입했다.

유영준 뤼튼 COO는 “새로운 서비스에 쓰일 LLM은 좋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높은 안정성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며 “제미니는 자체 테스트에서 그 기준을 충족했고, 현재 다양한 LLM들과 함께 적재적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클라우드의 버텍스 AI를 통해 빠른 처리속도를 확보했고, 가성비 또한 만족스럽다”며 “사용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LLM을 조합하면서 제미니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

코엑스 행사장 내 AI 체험 공간인 ‘제미니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LG유플러스, NC AI, 카카오톡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적용한 사례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와 통화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AI 통화 앱을 소개했으며, NC는 다국어 AI 보이스 서비스와 패션 특화 이미지 생성 툴, AI 번역 기술 등을 전시했다. 카카오톡은 제미니 기반 주소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 실사용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올해 정보보호 투자 30% 늘린다

〈전년비〉

‘정보보호백서 2024’ 발간
전문인력 157명 → 293명 확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활동도 정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보안 관련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정보보호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에는 LG유플러스의 보안 조직 체계와 운영 구조가 포함됐다. 정보보안센터는 CEO 직속 조직으로, CISO/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정보보안 기술담당과 개인정보보호담당이 각각 보안 기술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 수립 및 관리를 맡는다.

보안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와 인력 확충 내용도 담겼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약 828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6억



LG유플러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사적인 보안 역량 강화 노력을 담은 ‘정보보호백서 2024’를 발간했다. /LG유플러스

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전년 157명에서 올해 293명으로 확대됐다.

내부 보안 포털 재구축,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시스템 구축, AI 기반 보안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의 시스템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프라이버시센터 개소, 해킹대회 개최, 버그바운티 운영 등 대외 활동도 포함됐다.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고객피해방지 분석 시스템 운영과 서울경찰청과의 공조 체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 LG유플러스는 숭실대학교와 협력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보안 인재 양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조계, 산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활동도 정리됐다.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보안 추진 방향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백서에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단말 보안 강화, 접근제어 모델 정립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안 체계 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김서현 기자



지난 5일 개최한 걸스 캔 두 IT 해커톤에서 참가 학생들이 심사위원단에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작품을 시연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걸스 캔 두 IT’ 성료

여중생 디지털 진로탐색 기회 제공

여중생들이 직접 생활 속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IT 기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해커톤이 열렸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유네스코(UNESCO)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한 해커톤 프로그램 ‘걸스 캔 두 IT’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걸스 캔 두 IT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CJ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은 수도권 소재 지역아동센터 소속 여중생들이 참여했다. 참가학생들은 본 행사에 앞서 6월 한 달간 총 16시간에 걸쳐 레고(LEGO)를 활용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기반의 융합 교육을 이수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웠다.

지난 5일 CJ 인재원에서 열린 해커톤 결선에서 학생들은 직접 발굴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IT 아이디어와 레고를 활용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네이버 ‘치지직’, 3년간 ‘이스포츠 월드컵’ 독점 중계

내달 24일까지 열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올해부터 3년간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이스포츠 월드컵(EWC)’의 한국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고, 개막일인 8일부터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EWC는 이스포츠 월드컵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로,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총 48일간 열린다. 총상금 규모는 7000만

달러(약 1000억원) 이상으로, 전체 24개 게임으로 진행되는 25개의 경기 결과를 종합해 가장 높은 포인트를 기록한 팀이 ‘클럽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다.

네이버 치지직은 이번 대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등 국내 e스포츠 팬들의 시청 수요가 높은 14개 종목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는 T1, 젠지, 한화생명, DRX, 농심 등 국내 최정상급 프로팀들이 출전하는 만큼 깊이 있

는 해설을 위해 전문 중계진을 섭외하고 인플루언서 ‘미미미누’와 치지직 인기 스트리머들을 사우디 현장에 파견한다”며 “대회의 열기와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치지직은 EWC의 한국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e스포츠 팬들에게 몰입도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종합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KT, 지니TV에 ‘말이 통하는 AI’ 구현

음성명령 넘어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

KT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 초거대 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단순 음성 명령 인식을 넘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말이 통하는 AI’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지니T

V AI 에이전트는 뉴스나 날씨 등 생활 정보는 물론, 시사·교양·과학·인물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이나 줄거리만으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준다.

KT는 2017년 AI 스피커 ‘기가지니’ 출시를 통해 기술을 축적, 음성 인식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실시간 검색 기능도 연동했다. /김서현 기자